

광주·전남 취준생 울리는 구인 사기 ‘기승’

리뷰 쓰면 옷돈 유혹해 돈 갈취…영업사원 모집, 알고보니 보험설계사
당근마켓 등 ‘알바 사기’ 잇단 글…취직 의욕 꺾는 거짓 구인광고 증가
전국 청년층 ‘쉬었음’ 1년새 7만여명 늘어 청년백수 120만명 넘어서

‘취업 한파’로 전국적으로 ‘청년 백수’가 120만 명을 넘어서고 광주·전남의 청년 실업률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도 이들의 취직 의욕을 꺾는 취업 사기나 거짓 구인 광고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에 사는 30대 A씨는 최근 SNS에서 ‘쇼핑몰 물건을 구입 후 리뷰를 쓰면 옷돈을 얹어 주겠다’는 알바 광고를 보고 참여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처음에는 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고 리뷰를 쓰니 15만 원을 입금받아 수익을 올렸는데, 점차 매입을 요구하는 액수가 늘어 수천만원 수준까지 올라갔다. A씨는 8000여만원의 대출을 받아 쇼핑몰에 입금했는데 이후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쇼핑몰 업자와 연락이 끊겼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 광주시 서구에 있는 한 중소기업이 낸 정책자금지원 의료 장비 및 기계장비자금지원 영업사원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막상 회사를 찾아가 보니 영업사원이 아닌 보험설계사 일을 하게 된 것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 해당 구인공고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다.

당근마켓과 지역 커뮤니티 등에도 “알바 사기를 당했다”는 글이 최근 잇따라 올라왔다.

광주 지역 맘카페에서도 ‘거짓 구인 광고 주의’ 글이 올라왔다.

한 맘카페에는 최근 “시급 1만4700원으로 단가가 높은 단기 포장 알바 공고 사기 주의 게시글을 조심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채용을 할 것처럼 개인

정보를 받아가더니 그대로 연락이 끊기는 사례가 잇따랐다는 것이다.

또 “사무직 알바 공고(시급 1만5000원) 취업 사기니 주의하라”는 내용의 게시글도 올라왔다. 쇼핑몰 홈페이지에 들어와 알바를 지원할 때 입력하는 개인정보와 계좌 정보를 탈취하거나, 외부 URL을 보내 휴대전화 인증을 하라면서 해킹앱을 설치할 것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특히 SNS에 뜨는 부업 알바,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글을 쓰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공고를 주의하라는 사례가 많았다.

올해는 피싱 문자도 ‘구인 사기’를 중심으로 뿌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업체 ‘안랩’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를 보면 올 3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문자 공격 유형은 ‘구인 사기(35.01%)’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정부·공공기관 사칭(23.77%), 텔레그램 사칭(20.07%), 금융기관 사칭(10.98%) 등이었다.

‘구인 사기’ 유형은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재택근무 모집 등으로 가장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즉시 채용’, ‘고액 수당 지급’ 등 비현

실적인 조건을 내세워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일대일 대화방으로 유도해 금전을 갈취하는 사례가 꾸준히 확인됐다.

고용당국은 최근 청년 취업률이 떨어진 데 따라 거짓 구인 광고를 이용한 사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국가데이터처 고용 통계에 따르면 전국 15세부터 29세 사이의 청년 중에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인구 수는 120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비경제활동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는 162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9000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구직과 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다.

또 학업이나 가사 등 별다른 사유 없이 취업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64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7만 3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30대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보다 1만 9000명이 늘어난 32만 8000명

(12.4%)으로 집계됐다. 20대 ‘쉬었음’ 인구는 43만5000명(16.5%)으로 60대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의 청년 실업률도 증가 추세다. 올해 3분기 기준 광주 지역의 청년 실업률은 6.9%로, 전년 동기(6.2%) 대비 0.7%p 늘었다. 전남의 청년 실업률도 올해 3분기 기준 6.4%로, 전년 동기(6.1%) 대비 0.3%p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거짓구인광고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전국 거짓 구인 광고 신고 건수는 2020년 190건, 2021년 278건, 2022년 334건, 2023년 365건, 2024년 404건 등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구인 공고를 보는 사람들은 결국 행편이 넉넉지 않은 사회적 약자들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취업사기와 거짓 구인공고 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허술한 점이 있다는 것”이라며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실태 조사에 나서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누가 어린왕자를 아프게 했나

서창감성조망대 조형물 훼손되고 별 사라져…경찰 수사 의뢰

광주시가 최근 서구 서창동 일대에 설치한 ‘서창감성조망대’ 상징 조형물이 설치 하루 만에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지난달 2일 서창감성조망대에 설치한 철제 ‘어린왕자’ 조형물이 훼손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조형물은 높이 1.5m, 폭 1.2m 규모로 달 위에 앉아 낚시대로 별을 낚는 어린왕자를 형상화했다. 하지만 조형물에서 어린왕자를 형상화한 부분은 90도 가까이 강제로 구부러져 있었으며, 별을 형상화한 부분은 아예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광주시는 지난달 1일 조망대 개장식을 한 뒤, 이튿날에 조형물이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 인근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범행 장면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조형물을 안전사고 예방 등의 이유로 훼손된 조형물을 분리해 보관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두 명 이상의 인력이 상당한 힘을 가해 고의로 조형물을 파손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망대 일대에 12월까지 CCTV 설치를 마치고 손괴자가 특정되면 구상권 청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인석 광주시의원은 이날 열린 제338회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형물 훼손 사실을 들어 조망대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조망대가 투명 강화유리 난간으로 시공돼 조류충돌 위험이 큰 점, 주차장이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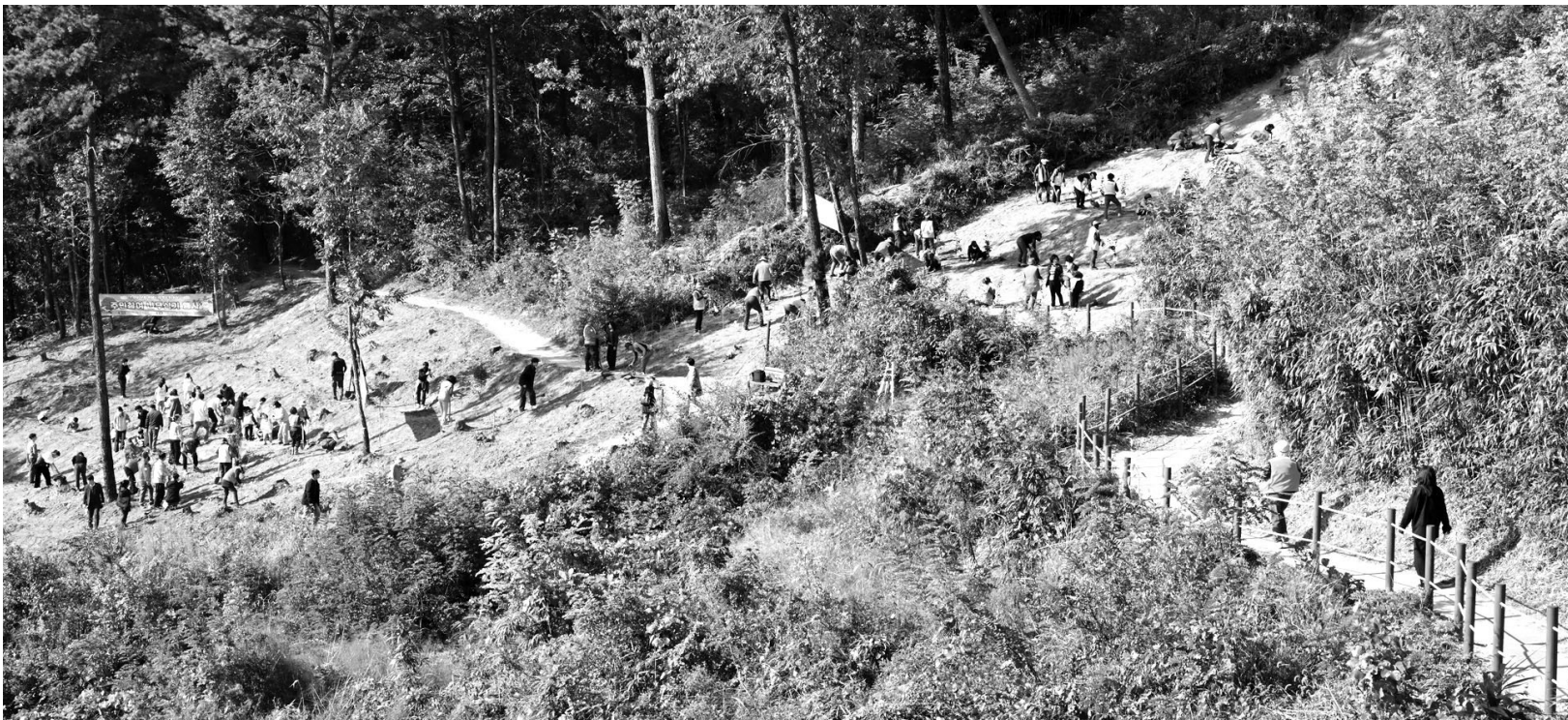


누군가 훼손해 사라진 별모양 조형물(점선 안)

되지 않아 불법 주차가 횡행하고 보행로의 경사가 심한 점 등도 문제삼았다.

한편 서창감성조망대는 광주시가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를 통해 조성된 보행 전용 조망 구조물로, 길이 166m 거더(girder·다리)와 같은 구조물에서 바닥판을 받쳐 주는 ‘큰보’와 616㎡ 규모 데크, 327m 난간 등으로 구성됐다. 조성하는 데만 총 2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2년전 불 났던 운암산에 나무 심어요

5일 광주시 북구 운암산 일원에서 열린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주민참여 나무심기 행사에서 주민들이 단풍, 동백, 목백합, 왕벚나무 등 총 300여주를 심고 있다. 운암산은 지난 2023년 3월 인근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인해 4ha가 소실됐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외제차 뺑소니 사망’ 운전자 징역 7년6개월 확정

대법, 위드마크 증거 인정 안해

‘광주 외제차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30대 고급 외제차(마세라티) 운전자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은 A(33)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사는 위드마크 공식을 토대로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해 음주운전 증거로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수사 기관이 추측한 수치에 불과하며, 음주 이후 시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을 적용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운전석 앞서

술을 마신 사실을 시인했으며, 경찰도 CCTV로 김씨의 음주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스스로 도피한 것은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3시 1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대포폰 등을 건네주며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징역형 처벌이 확정됐다.

/유연재 기자 yjyou@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크!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크!
바로 바로 확인까지 크!



zgm, 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자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지 평 지 점 062)381-8212~3
쌍 촌 지 점 062)381-6551~2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동 립 지 점 062)513-8521~3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운암혁신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유타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